

사시사철 작고 여린 들꽃, 잔잔한 삶의 향기로 다가온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들꽃수업

심재신 지음

다음은 어떤 꽃을 말하는 것일까. 꽃받침 5개로 갈라져 있고 암술은 하나이지만 수술은 4개다. 학명은 '구부러진 수술을 가진 큰 꽃'이다. 바닥에 떨어진 이 꽃잎은 여름에 운치를 선사한다.

꽃에 대해 세세한 관심을 가진 이가 아니면 무슨 꽃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여름이라는 계절, 학명에 담긴 모양을 상상해보면 짐작할 수도 있을 듯하다. 조금만 힌트를 주자면 기성세대들은 어린 시절 동네 어귀나 길가에서 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가에서 키울 수 있어서 '양반꽃'이라고도 불렀다.

바로 능소화다. 꽃말은 '그리움'이다. 능소화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온다. 옛적 하룻밤 임금의 처소에 들었던 한 공녀는 오매불망 임금이 다시 찾아주기를 기다린다. 그녀는 간절히 임금을 기다리다 결국 죽고 만다. 그리고 자신의 처소가 있던 담장에서 꽃으로 피어난다. 죽은 공녀의 이름은 '소화'였다.

능소화에 담긴 처연한 속명을 시로 형상화한 박남준 시인의 '당신을 향해 피는 꽃' ('적막' 창비, 2005)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능소화를 볼 때마다 생각한다/ 다시 나는 능소화, 하고 불러본다/ 두 눈에 가물거리며 어떤 여자가 불러 나온다/ 누구였지 누구였더라/ 한번도 본 적 없는 아니 늘 담장 밖으로 고개를 내밀던/ 여자가 나타났다..."

우리 산하에는 사시사철 꽃이 핀다. 들꽃 한구석, 이름 모를 골짜기에 피어 있는 들꽃은 보는 이에게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한다. 누가 돌보지 않아도, 수수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선 들꽃의 이미지는 생명력, 수수함 등으로 갈무리된다.

들꽃을 시문학과 연결해 에세이로 풀어낸 '들꽃 수업'은 향기로운 책이다. 국어교사였던 심재신 교감은 생생한 감각과 인문학적 통찰을 토대로 들꽃의 다양한 면모를 담았다. 일상에서 다양한 들꽃을 만나왔던 저자는 들꽃의 고유한 미와 개성적인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작고 여린 들꽃들과 함께 걸어 올린 삶과 자연, 문학 이야기'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들꽃에 대한 아름다운 헌사다. 저자는 꽃에 대한 찬사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삶과 연계해 풀어낸다.

책에 등장하는 꽃은 다채롭다. 진달래꽃, 짙은꽃, 도라지꽃, 민들레, 난초, 장포, 원추리, 동백꽃, 구절초, 쑥부쟁이, 목련꽃, 수선화, 애기똥풀꽃,

작약, 제비꽃, 라일락 등 기억에 남아 있거나 나들이 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꽃들이다.

산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라지꽃은 개화 전 흰색에서 청색으로 변한다. 부풀어 오른 모습 덕분에 '풍선꽃'으로도 불린다. 여름철 보라색과 유사한 별 모양의 꽃들로 들뜬 푸른 별밭으로 변한다. 저자는 "수많은 사연을 품은 듯한 색을 지녔지만 맑은 모습"을 띄는 도라지꽃이 상처받아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닮았다고 본다.

'여름 숲의 귀족'인 달개비꽃은 닭의장풀로도 불린다. 파란 꽃잎, 노란 수술, 흰 수술대, 암술대, 꽃받침은 귀족의 자태를 떠올리게 한다. 벼를 세운 장담 같기도 하고 푸른 두건을 쓴 도련님 같은 이미지가 배어나온다. 저자는 "'한국식물 이름의 유래'에서는 '조선식물명항집' (朝鮮植物名集)이나 '동의 보감' (東醫博鑑)에서 줄기가 단단히 닭의 찡자 같다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설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름도 다양한데 달개비, 닭개비, 달래개비, 닭의꼬고, 계장초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들꽃과 대표인 구절초는 일본에서는 '조선 들꽃화'라고 부른다. 백의민족의 상징성을 띄는 꽃이다. 음력 9월 9일 중앙절 무렵에 줄기가 아홉 마디가 된다. 홀수가 두 개 겹치는 날이라 매우 길이다. 홀수가 많아서 다른 들꽃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지만 한편으로 쉽게 어우러지지 않는다.

이밖에 '절망의 끝자락에 피는 꽃, 해국', '풍성하고 아름다운 감각의 제국, 비파', '첫사랑의 향기, 라일락' 등 담담하면서도 다정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창비·1만8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랑꽃창포



'하늘을 능멸하다'는 뜻을 지닌 능소화는 여름철의 지갈 곳만 있으면 기어올라가는 생명력이 강한 꽃이다.
〈창비 제공〉

차시 일백수

송재소 역해

이규보, 천척, 이곡, 이색, 서거정, 이목 등... 이들은 차를 모티브로 시를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뿐 아니라 이백, 배적, 육유, 백거이, 유종원, 여정, 구양수 등은 중국에서 차를 소재로 시를 썼던 인물들이다.

일반적으로 '차시' (茶詩)는 차를 소재로 한 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에는 차시가 많이 창작됐다. 차를 마시면서 느꼈던 심상이나 차에 대한 사유, 감상 등을 풀어낸 차시는 일부 계층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돼왔다. 문인, 승려, 학자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들은 시를 단순한 기호품 이상으로 생각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차시' 113수를 엮은 책이 나왔다. 한국한문학회 회장을 역임한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퇴계학연구원 원장)가 번역하고 해석한 책은 차를 모티브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시를 소개한다.

사실 오늘날은 커피의 시대라고 할 만큼 골목마다 카페가 들어서 있지만, 예전에는 주위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시대 트렌드와 기호품의 변화와 맞물린 탓도 있지만 차의 진정한 맛과 멋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옛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두 가지 효능을 느꼈다. 하나는 잠을 쫓고 숙취를 없애는 데 일종의 효능이 있다고 봤던 것이다. 조선 중기 문인 조태채는 차를 일컬어 인삼만큼 값지다고 표현했다. 또 하나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수양의 도구로 차를 상정했다는 점이다. 특히 승려들은 수행의 도구로 차를 마셨는데 어떤 이들은 차를 마시면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노래했다.

책에는 부록으로 '한국의 차 문화'와 '중국의 차 문화'가 수록돼 있어 차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들배개·3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생에 한 번은 행복을 공부하라

탈 벤 사하르 지음, 손영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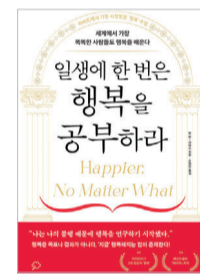
'행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버드 역사상 가장 받은 강의', '아이비리그 3대 명강'로 불리는 하버드대 탈 벤 사하르 교수의 '행복' 수업이다.

'성공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이 뒤따라 온다'고 믿는 탈 벤 사하르가 쓴 '일생에 한 번은 행복을 공부하라'는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자기계발서다.

저자는 행복을 간접적으로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행복을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고 각 요소의 점수를 매겨 현재의 행복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행복의 다섯 가지 요소는 마음의 안녕(Spiritual Wellbeing), 몸의 안녕(Physical Wellbeing), 배움의 안녕(Intellectual Wellbeing), 관계의 안녕(Relational Wellbeing), 감정의 안녕(Emotional Wellbeing)으로 이를 '스피어(SPIRE)'라고 부른다.

'마음의 안녕'에서는 자기 일을 천직으로 삼고 자신의 행동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법을 알려주고, '몸의 안녕'에서는 운동과 휴식을 통해 회복하는 법을 얘기한다. '배움의 안녕'은 누구나 가진 본능적인 호기심을 이끌어 내는 법을, '관계의 안녕'에서는 관계가 행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 '감정의 안녕'에서는 고통이나 슬픔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임을 상기시킨다.

부록으로 나의 행복점수 확인하기와 행복 처방전을 수록했다. 서두에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 자가 점검을 통해 행복 수준 점수를 매기고, 말미에 똑같은 질문으로 재점검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요소별 점수를 매긴 후 특히 부족한 부분이나 더 채우고 싶은 부분을 골라 처방전을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은생각·1만7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히틀러와 미학의 힘

프레데릭 스팟츠 지음, 윤채영 옮김

'전쟁광', '학살자' 등 수많은 수식어가 있는 히틀러는 예술을 좋아했던 '예술 애호가'이기도 했다. 바그너를 숭배하고 보헤미안 예술을 애호했던 그는 문화예술을 독재에 이용했다. 실패한 미대생이던 히틀러는 나치의 예술 미학을 활용해 대중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과시했다.

미국 전직 외교관이자 문화역사가, 저술가 프레데릭 스팟츠가 히틀러와 미학의 상호관계를 조명한 '히틀러와 미학의 힘'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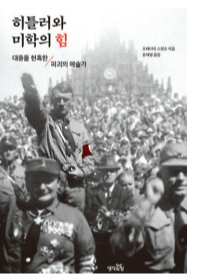
"모든 절대 권력자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그들은 예술을 조작하고 거대한 건물을 지어 압도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기 주장과 자기 숭배를 동기로 삼는다."

책은 히틀러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데 미학을 활용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완성하기 위 에데올로기적 장치들 건축, 회화, 사진 등에 답했다.

저자는 히틀러가 미대 지방생 시절 그렸던 스케치부터 제국총리관 지하 벙커에서의 모습 등 100여 장의 사진·그림을 활용해 나치즘의 필두로 섰던 그의 다방면을 조명한다. 그러면서 파시즘이 어떻게 예술의 무기로 활용됐는지, 히틀러가 제3제국을 통해 꿈꿨던 유럽 재건의 꿈과 창조적 열망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밝힌다.

저자는 히틀러가 '정치적인 예술가'였는지 '예술적인 정치가'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독일 리모텔링과 정치적 건축의 도입을 통해 꿈꿨던 '불멸'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말한다.

〈생각의힘·3만7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